

제 목	국 문	근로자 건강진단시 간기능 이상자의 간질환 원인 및 적정검사항목의 선정에 관한 조사연구		
	영 문	A Study on the Causes of Liver Dysfunction and Choice of Optimal Screening Tools among Workers with Abnormal Liver Function Tests on Workers' Periodic Health Examin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정해관 ¹⁾ , 임현술 ²⁾ , 김규희 ²⁾ 1) 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 2)동국의대 예방의학		
	영 문	Hae Kwan Cheong, Hyun Sul Lim, Gyu Hoi Kim <i>Schl. Publ. Hlth, SNU, Coll. Med., Dongguk Univ.</i>		
분 야	산업보건관리	발 표 자	정 해 관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근로자 정기건강진단시 간장기능이 의심되는 근로자의 간장질환의 원인별 분포를 파악하고 2차 건강진단시 간기능이상자의 추가검사를 포함한 2차 검사 항목별 비정상 소견율과 각 검사항목의 판정에 기여도를 추정하여 2차 건강진단의 적절한 검사항목을 선정하는데 판단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포항지역의 2개 제조업체 근로자 1,178명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혈청 GOT가 50IU 이상 또는 혈청 GPT가 45 IU 이상인 192명을 간장질환 의심자로 분류하였고 이중 1993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차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186명을 연구대상으로하여 이들에 대하여 신장, 체중, 음주력, 과거질병력, 간염예방접종 경력, 흡연력, 증상 및 증후 등을 묻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입하게 한 후 의사 검진시 설문지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이들에 대해 기존의 2차검사 항목인 혈청 GOT 및 GPT, 단백, 혈청 알부민, 빌리루빈,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감마 지피티 및 알파피토프로테인 등을 측정하였고, 거기에 부과하여 C형 간염 혈청검사와 간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p>				

3. 연구 결과

1) 간기능 이상자를 기존의 2차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간질환주의 75명(40.3%), 정상 63명(33.9%), B형 간염주의 13명(7.0%), B형 간염 10명(5.4%), B형 간염 보균자 10명(5.4%), 알코올성 간질환 10명(5.4%), 지방간 5명(2.7%) 였다. 음주력을 감안하여 재판정한 결과 기존 판정자 중 지방간 3명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체질량계수를 판정기준에 추가하였을 경우 기존의 간질환주의자 중 4명이 지방간으로 재분류 되었다. C형 간염 항체검사를 판정기준에 추가하였을 경우 기존 판정자 중 정상 판정자 4명, 간질환주의자 중 5명 및 지방간 판정자 1명이 C형 간염 보균자(4명), C형 간염주의(5명) 및 C형 간염(1명)으로 재분류 되었다. 간초음파검사를 판정기준에 추가하였을 경우 기존 정상 판정자 중 15명, 간질환주의 판정자 중 25명이 지방간주의(40명)로 재분류 되었다.

2) 기존 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의 양성을 및 판정기여도를 토대로 항목별로 검토하였을 때 SGOT, SGPT, γ -GTP 및 B형 간염 항원 이외의 간기능검사 항목은 간질환 판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음주력, 체질량계수, C형 간염 항체검사 및 간초음파검사는 간질환판정의 감별진단에 기여도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비용, 설비 및 인력을 고려할 때 간초음파검사는 2차 검사 항목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연구자는 간기능 이상자의 효과적인 간질환 판정을 위하여 기존의 건강진단 항목 중 SGOT, SGPT, γ -GTP 및 B형 간염 표면항원 검사만을 시행하며 음주력과 체질량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새로이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